

학교마을도서관 운동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History of School and Community Libraries Movement in Korea

변 현 주 (Hyeon Ju Byeon)**

조 미 아 (Miah Cho)***

초 록

본 연구는 학교마을도서관의 태동, 성장, 발전, 확산을 통한 성과요인을 분석하고 현 단계 학교마을도서관 운동의 과제는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학교마을도서관 운동과 관련된 관계자와 인터뷰를 수행하였으며 다양한 문헌자료를 수집하였다. 학교마을도서관 운동의 추진과정을 태동기, 성장기, 발전기, 확산기, 전환기의 5단계로 구분하였다. 학교마을도서관의 역사에 나타난 학교마을도서관의 운영 성과와 의미를 파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마을도서관은 문화소외지역 중심으로 개설되어 공공도서관의 부족과 작은도서관의 편중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였다. 둘째, 농·산·어촌 지역의 소규모 초등학교에 부족한 장서를 제공함으로써 학교도서관의 운영이 활성화되었다. 셋째, 학교도서관의 운영인력과 장서, 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서관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었다. 넷째, 학교마을도서관이 지역 커뮤니티 거점 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이 강화되고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performance factors of the school and community libraries in its beginning, growth, development, and expansion to identify the assignment of the movement at the present stage. In this study, we performed interviews with those concerned with the school community and library movement and collected various relevant literature. The school and community libraries movement can be divided into five stages including beginning, growth, development, expansion, and turning point. Therefore performance and significance of school and community libraries shown in the history of the movement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school and community libraries were established mainly in areas isolated from cultural benefits, contributing to resolving problems such as a lack of public libraries and concentration of small libraries in certain areas. Second, the movement promoted the operation of school libraries by providing books for small-sized elementary schools in farming & fishing villages and mountain villages, libraries that were insufficient in books. Third, the movement utilized the minimal personnel, books, and spaces of school libraries to provide library services to community residents, securing permanence of library services, if nothing else. Fourth, school and community libraries played the role of local community-based libraries, intensifying the community spirit of residents and vitalizing communities.

키워드: 학교마을도서관, 학교도서관, 마을도서관, 도서관 운동, 김수연, 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
School and Community Library, School library, Community Library, Library Movement,
Kim Su Yeon, People Making Small Libraries

* 본 연구는 2016학년도 경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보완한 논문임.

**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 사무국장(wiseball@hanmail.net) (제1저자)

*** 경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miah100@naver.com)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 2016년 5월 23일 논문심사일자 : 2016년 6월 20일 게재확정일자 : 2016년 6월 22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7(2): 151-170, 2016. [http://dx.doi.org/10.14699/kbiblia.2016.27.2.151]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독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전 사회에 확산됨에 따라 지역의 독서문화 공간으로서 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도서관 건립 및 작은도서관 지원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의하면 2015년 '도서관 기반 확충 및 운영 내실화' 분야에 5,836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이 계획을 통하여 47개관의 공공도서관을 조성 확충함으로써 전국의 공공도서관의 수는 총 968개관으로 증가하고, 공공도서관 1관당 봉사 대상 인구수는 53,000여 명이 된다(문화체육관광부 2015).

그동안 공공도서관의 수적인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민간에서는 자발적인 작은도서관 운동이 전개되어 왔다. 접근의 편의성을 기반으로 작은도서관은 독서문화 공간과 지역단위 생활문화공간으로써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보완하며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작은도서관은 2013년 4,686개관에서 2014년 5,234개관, 2015년 5,595개관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공립 작은도서관의 조성이 확대되고, 민간에서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립 작은도서관의 증가가 지속되면서 급속한 양적 성장을 이룬 것에 기인한 것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16).

공공도서관이 정보접근의 평등성과 공유성을 실현하는 정보사회의 기반시설이며 정보사회의 선도자라는 사회적 책무를 가지는 것에 비해 오

늘날 우리 사회의 공공도서관은 그 기능과 사회 인식의 측면에서 열악함을 면치 못하고 있다(이연옥 2001). 특히 인구밀도가 낮은 농·산·어촌 등 벽지에 위치한 지역은 많은 자본과 운영비가 요구되는 공공도서관의 개관은 힘들며, 자발적인 참여로 작은도서관을 운영할 인적 자원을 활용하기에도 어려운 형편이다. 따라서 이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대다수는 도서관이 제공하는 독서문화의 수혜에서 소외되고 있다.

공공도서관 수의 부족과 작은도서관 운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학교마을도서관이 설립되었다. 학교마을도서관은 문화적 혜택을 받기 어려운 시골지역의 학교도서관의 공간을 활용하여 학생 뿐 아니라 마을 주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된 도서관이다. 학교마을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독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개최함으로써 마을 사람들의 사랑방 역할을 수행하는 매우 중요한 장소이다.

독서문화 혜택의 지원이 취약한 지역에 조성된 학교마을도서관의 역사를 이해하고 그 과정을 조사하는 것은 국민 독서문화 환경의 격차를 해소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작은도서관 운동의 관점에서 학교마을도서관의 역사적인 변천과정과 시기별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그동안 이루어진 학교마을도서관의 운영성과와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우리나라 학교마을도서관의 역사

를 운동사의 관점에서 모색하였다. 학교마을도서관 운동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학교마을도서관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는지, 누가 주도하였는지, 전개 양상은 어떠한지, 발전·확산요인은 무엇이었는지, 성과는 어느 정도였는지, 학교마을도서관 운동을 위한 행정적 지원 등을 조사하였다. 이를 통하여 학교마을도서관의 태동, 성장, 발전, 확산을 통한 성과요인을 분석하고, 현 단계 학교마을도서관 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는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학교마을도서관 운동사 연구의 내용은 일반적인 사회사 연구의 흐름에 따라 사실을 기술하고 재구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연구자의 관점과 논거에 입각한 해석이 이루어졌다. 이 연구에 적용한 방법은 역사적 연구방법이다. 역사적 연구 방법을 통하여 우리는 과거의 사건이 언제 어떻게 발생하였는가에 대한 이해를 증대시킬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사건들의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연구방법의 토대 위에 연구는 다음과 같이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연구자는 1995년부터 좋은책읽기가족모임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였으며 2000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의 사무국장으로 봉직하면서 학교마을도서관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므로 학교마을도서관의 시기별 변화상을 파악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연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마을도서관 운동의 역사적 현장을 기록한 신문과 잡지, 단행본의 기록, 각종 도서관 활동 및 연구보고서, 자료집 등을 활용하였다. 또한 학교마을도서관 관련 단체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였으며 학교마을도서관

운영 관련자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1.3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는 “학교마을도서관”은 ‘학교도서관을 개방하여 지역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도서관과 마을도서관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도서관’으로 정의한다. 학교마을도서관은 학교장과 마을주민 대표 1명이 공동으로 도서관장을 맡고 사서, 교사와 마을주민들이 협력해서 운영한다. 독서문화 환경이 열악한 산간벽지, 농·산·어촌 지역의 초등학교에 주로 개설되어 어린이들의 독서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주민들에게는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된다.

2. 선행 연구

지금까지 도서관 운동의 차원에서 수행된 문헌정보학 분야의 연구는 마을도서관운동사(이용남 2000), 학교도서관운동사(김종성 2000), 공공도서관운동사(이연옥 2001)가 대표적이다.

이용남(2000)은 마을문고 운동의 초기 전개 과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우리나라 마을문고 운동이 형성된 1961년부터 1967년까지 7년간 전국 농어촌 마을에 문고를 보급한 운동의 추진 원칙과 문고설치 및 육성 방침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바탕자료는 각종 출판물의 기록과 행정문서 그리고 필자의 기억과 창설자 엄대섭의 확인을 기초로 하였으며 마을문고 운동 전개에 필요한 재정조달 과정 및 당시 문고운동의 성과를 평가하였다.

김중성(2000)은 학교도서관의 역사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서 운동사라는 큰 틀 속에서 의미를 해석하였다. 모든 역사연구는 사료에 의존한다는 당위에 따라 연보, 연대기, 전기, 회고록 등 의도적인 사료까지 망라하여 수집하였으며 학교도서관 운동에 참여하였거나 참여하고 있는 인사를 대상으로 심층적인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이연옥(2001)은 해방 이후부터 2000년까지 공공도서관 운동의 변화추이를 주요한 사건과, 사회적 환경, 운동의 성격 등을 고려해서 운동의 단계를 구분하고 각 단계별 운동 현상과 구조를 분석하였다. 역사 속의 중요한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을 발굴하여 이들의 경험을 정리했으며 문헌과 증언을 통한 고찰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이를 통하여 공공도서관과 관련한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분석과 해석을 통해 과거 사건에 대한 올바른 의미를 찾아내고 이를 기반으로 현재와 미래의 공공도서관 운동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학교마을도서관과 관련된 연구는 학교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에 관한 연구, 마을문고에 관한 연구, 학교마을도서관의 실태조사를 통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지역사회 개방형 초등학교 도서관의 운영실태와 만족도 분석을 수행한 박시영(2015)은 경상남도지역 지역사회 개방형 학교 중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학교마을도서관과 지원이 없는 일반 개방형 학교도서관간의 운영과 이용자 만족도에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이미영(2013)은 학교도서관의 활용과 지역

사회의 중심으로서 학교도서관의 역할을 파악하기 위하여 학교마을도서관의 교장, 운영자,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와 전문가 인터뷰 조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학교마을도서관의 성과로 지역주민의 독서량의 증가와 접근성의 증대, 공공도서관 이용의 어려움 보완을 들고 있으며 활성화방안으로 학교도서관진흥법을 통해 학교마을도서관의 건립과 지역사회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의 확보, 지역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을 통한 자원확보 방안 구축, 지역주민을 활용한 지역 문화공동체 운영 인력 교육 방안, 마을공동체의 구심점으로서 평생학습관, 문화관, 독서실의 기능을 모두 제공하는 형태의 운영을 제시하였다.

김순덕(2012)은 경상남도에 소재한 13개 학교마을도서관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교사,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학교마을도서관은 학생들의 학습공간만이 아니라 지역의 사랑방, 독서의 놀이터, 휴식 공간, 지역주민들의 정보교류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특정 지역과 일정 기간을 대상으로 한 학교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에 관한 연구, 학교마을도서관의 실태조사를 통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주로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 학교마을도서관이 어떠한 과정으로 시작되어, 어떠한 단계를 거쳐 발전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고 추진 단계별로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한 운동사적인 관점의 연구는 수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 학교마을도서관 운동의 추진과정

학교마을도서관 운동의 역사를 운동의 추진 주체 세력을 중심으로 시기별 특징에 따라 태동기, 성장기, 발전기, 확산기, 전환기로 구분하였다.

태동기는 설립자 중심의 계몽적 독서운동시기이다. 성장기는 법인격을 갖춘 민간단체에서 운동을 주도하며 학교마을도서관 개설 원칙을 정립하는 등 운동의 성격을 명확히 한 시기이다. 발전기는 학교마을도서관의 민, 관, 기업, 언론의 협력모델을 구축하며 양적, 질적 성장

은 물론 학교마을도서관이 제도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나타난 시기이다. 확산기는 학교마을도서관 운동에 참여하는 광역자치단체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으며 학교마을도서관 운동의 주체도 다양화되면서 운동이 확산된 시기이다. 전환기는 학교마을도서관 운동이 다소 위축된 시기로 볼 수 있으며 운동주체의 하나인 기업재단이 학교마을도서관 사업을 종료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변경 등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학교마을도서관 운동의 재정립이 필요한 시기로 볼 수 있다. 학교마을도서관 운동의 특성을 추진 단계별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학교마을도서관 운동의 추진 단계별 특성

단계 내용	태동기 (1987-1996)	성장기 (1997-2005)	발전기 (2006-2008)	확산기 (2009-2013)	전환기 (2014-2015현재)
조성 주체	김수연 좋은책읽기가족모임	김수연 (사)좋은책읽기가족 모임	(사)작은도서관만드는 사람들(네이버후원)	(시)작은도서관만드는 사람들, 네이버문화재단, 지자체	(사)작은도서관만드는 사람들, 지자체
조성 장소	마을회관 학교도서관	학교도서관	학교도서관	학교도서관	학교도서관
협력 기관	학교, 좋은책읽기가족모임	학교, (사)좋은책읽 기가족모임, 사회복지 지공동모금회	학교, (사)작은도서관만 드는사람들, 언론, 지자 체, 교육청, 네이버(후원)	학교, (사)작은도서관만 드는사람들, 네이버문화 재단, 지자체, 교육청	학교, (사)작은도서관 만드는사람들, 언론, 지자체, 교육청
지원 방향	민간단체에서 개설지원	민간단체에서 개설지원	기관간 협약을 통한 개설 및 운영지원	기관간 협약을 통한 개설 및 운영지원	민간단체개설지원, 지자체 자체개설 및 운영
지원 내용 (민간)	도서 3,000여권 의료, 미용봉사병행	도서 3,000여권 미용봉사, 독서행사 진행	도서 3,000여권 독서행사진행	도서 3,000여권 독서행사(책잔치) 진행	도서 3,000여권 독서행사 진행
운영 인력	교사+주민 봉사자	교사+주민 봉사자	교사+사서도우미 (유급: 지자체지원)	교사+사서도우미 (유급: 지자체지원)	교사+주민봉사자+ 사서도우미
운영 주체	학교+지역 도서관장: 학교장, 주민대표1명	학교+지역 도서관장: 학교장, 주민대표1명	학교+지역 도서관장: 학교장, 주민대표1명	학교+지역 도서관장: 학교장, 주민대표1명	학교+지역 도서관장: 학교장, 주민대표1명
조성 도서관 선정 방법	민간단체의 자료조사를 통해 선정	신청지역 중 심사를 통해 선정	협약지역교육청 추천	협약지역교육청추천	신청지역 중 심사를 통해 선정
조성 도서관수	18개	33개	102개	157개	23개
교류 협력	-	-	온라인카페운영 운영자워크숍	온라인카페운영 운영자워크숍	-

3.1 태동기(1987~1996)

학교마을도서관 운동이 태동한 1980년대 말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 수는 부족한 형편이었고, 특히 농·산·어촌은 도서관을 이용하거나 책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못한 문화 소외 지역이었다. 1987년 김수연은 '좋은책읽기가족모임'을 발족하고 산간벽지와 농·산·어촌, 해외동포에게 '책보내기 사업'을 전개하였다. 도심지역에서 사립작은도서관을 운영함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문화적인 혜택이 부족한 농·산·어촌 지역의 어린이와 주민들에게 좋은 책을 나누어 문화평준화로 맑고 밝은 사회를 만들겠다는 취지였다. 김수연은 그의 자서전(2008)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책을 많이 읽는 국민, 지식과 정보가 널리 공유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서관 확대가 시급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도시를 제외한 읍·면 지역에는 도서관이 거의 전무한 상태여서 갈 길이 멀다고 할 수 있다. 내가 독서운동을 펼치면서 특히 산간벽지 마을을 골라 무료로 도서관을 개설해 온 것은 책을 필요로 하는 곳에는 어디든 책이 있어야 하고 이 땅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책을 읽어야 한다는 믿음 때문이다. (김수연, 『내 생의 단 한번의 약속』)

학교마을도서관 운동의 태동과정은 엄대섭의 마을문고 운동(이용남 2000)과 유사한 점을 파악할 수 있다. 첫째, 마을문고 운동이 창설자인 엄대섭의 정신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전개되었는데, 학교마을도서관 운동에 있어서도 창설자인 김수연의 역할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도심지역에 사립도서관 설립으로 독서운동을 시작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공공도서관으로 기증하고 사재를 충당하여 농·어촌지역 도서관 운동을 전개한 공통점이 있다. 셋째, 농촌지역은 도시와 달리 마을단위의 소규모 독서시설을 마련하는 독서운동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이다. 차이점은 마을문고가 마을의 공동시설에 설치되었다면 학교마을도서관은 초등학교 도서관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몇 년간 수 만권의 책을 기증하였으나 단순히 일회성으로 책을 보내주는 일의 한계를 인식한 김수연은 1991년부터 농·어촌마을에 독서공간을 마련해주는 '마을도서관 만들기'를 시작하였다. 농·어촌을 대상으로 삼은 것은 공공도서관의 혜택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과 사회가 발전한다 해도 농촌지역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었다.

'좋은책읽기가족모임'은 1991년 전남 원천군 산내면 장항리 마을회관에 도서 1천 5백권을 기증하여 1호 마을도서관이 개관하게 되었다. 독서습관이 부족하고 도서관 이용 경험이 없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개관일에 의료봉사팀과 미용봉사팀을 참여시키고, 어린이들과 주민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었다. 도서관 개관식을 겸한 이벤트를 개최하여 마을주민들에게 다가가는 독서캠페인을 펼쳤던 것이다.

'양서보급운동을 벌이고 있는 좋은책읽기가족모임(대표 김수연 서울 삼성동 한길교회 담임목사)은 21일 전북 남원군 산내면 원천리에 도서 1천5백권을 기증하고 이곳 마을회관내 도서관

현판식을 가졌다. <이하생략> 이날 이 동네 사내 국민학교에 1일 무료진료소와 이미용실을 개설해 주민 5백여명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펼쳤다. 특히 이홍재내과에선 3억원을 호가하는 내시경 검사기구를 가져가 주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날 현판식에 참석한 주민 차재화씨는 “우리 마을에 도서관이 생겨 너무 기쁘다. 마을방송을 통해 원천부터 주민들이 적극 이용토록 하고 이웃동네에서도 책을 빌려보도록 적극 권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1991년 7월 23일)

1991년에 무릉마을도서관, 위도마을도서관이 개관을 하였고 1992년 문림마을도서관, 마산마을도서관, 청일마을도서관, 진부마을도서관을 개관하면서 마을도서관이 본격적으로 개설되었다. 마을도서관은 별도의 공간에 1,000-2,000권 정도의 장서와 열람공간을 설치하여 도서관의 형태를 갖추었다. 그러나 농·어촌 주민들의 독서활동을 위해 마을회관이나 별도의 유휴공간을 이용하여 조성한 마을도서관은 운영인력과 운영비등의 문제로 제대로 관리, 운영되지 못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강원일보 기사에 실린 기사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처음에는 마을회관에나 유휴공간이 있으면 어디나 책을 기증해서 마을도서관을 만들었죠. 그런데 1-2년 뒤에 가보니까 책이 거의 다 없어지고 남아있는 책들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었어요. 주민들의 자발적인 관리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전문적인 관리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어떤 책이 있고 누가 빌려갔는지 최소한의 운영은 담보할 수 있어야겠다는 생각에 학교도서관 활용을 주목하게 됐죠. 읍·면·동등

가장 작은 행정단위에서 존재하는 공공시설이 바로 초등학교입니다. 지금이야 많이 통폐합됐지만 90년대만 해도 읍·면·리까지 초등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도서관을 마을도서관이라는 기치로 이 운동을 지속해왔습니다.’ (『강원일보』, 2008년 7월 29일)

마을도서관의 운영의 한계를 경험하고 농·산·어촌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마을도서관 운영방안으로 학교도서관 활용을 구상하게 된 것이다. 마을도서관 개설 장소를 초등학교 도서관으로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농촌마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도서관을 새로 짓는 것 보다는 마을에 위치한 초등학교 시설을 활용하게 되면 별도의 시설비가 필요 없으며 지역주민들의 거주지와 인접한 곳에서 도서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재정상황에서 산간벽지, 농·어촌 읍·면까지 도서관을 만들 수 있는 현실이 안 됩니다. 학교라는 지역사회 교육공동체를 통해 도서관이 개방되고 아이들과 주민들이 어울려 책을 읽고 문화공간으로 확대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강원일보』, 2007년 10월 27일)

둘째, 학교도서관은 도서관의 3요소인 시설과 인력, 장서를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다. 비록 인력면에서는 도서관을 전담하는 사서 직원이 배치되어 있지는 않지만 학교 교사들의 의지와 학부모들의 도움이 있으면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표 2〉 학교마을도서관 개설 주요내용

개설지역	개설 장소	지원도서	개관행사	운영책임자	운영내용
농·산·어촌 (읍, 면)	초등학교 도서관 또는 유희공간	3,000권 내외 (어린이도서, 일반도서 6:4비율)	어린이·주민 백일장 의료, 미용봉사 마을잔치	교장, 주민 대표 1명 도서관장 위촉	야간개방 어린이 및 주민 도서대출, 독서동아리운영

셋째, 농·산·어촌 지역의 초등학교는 마을의 중심 문화공간으로 각종 마을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이므로 지역주민들이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넷째, 학교마을도서관 개설을 통하여 어린이들에게 좋은 책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농촌지역 초등학교 도서관은 시설은 조성되어 있으나 예산문제로 어린이들이 읽을 만한 좋은 책이 매우 부족한 형편이었다.

다섯째, 마을과 학교가 협력하여 도서관을 운영함으로써 공동체 문화의 기반을 확립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학교마을도서관의 주요 개설 내용은 독서환경이 열악한 농·산·어촌 지역의 초등학교도서관 또는 학교내 유희공간에 개설하고, 어린이와 일반 지역주민들을 위한 도서를 3,000권 내외로 지원하며, 교장과 지역주민 대표가 공동으로 도서관장으로 위촉되어 학교마을도서관 운영을 책임진다는 것이다(〈표 2〉 참조).

초등학교에 마을도서관을 개설하기 위하여 학교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였다. 마을도서관 개설을 위한 도서구입비는 창설자인 김수연이 사재를 출연하여 사업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공공도서관이 부족하고 학교도서관의 장서도 부실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에서 학교 내 마을도

서관 운영을 위한 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또한, 우리 사회에 기부문화가 보편화되지 않았고 특히 도서관 개설을 위한 기부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초기의 이와 같은 어려움을 김수연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운동초기에는 모든 것이 백지상태였다. 넉넉잡은 사비를 털어 책을 잔뜩 싣고 찾아가면 어쩔 수 없이 책을 받아도 속으로 못 마땅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마음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책을 주겠다고 찾아갔다가 “우리 책 안사요”소리를 듣기도 했고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냥 돈으로 주면 안 되겠냐”는 말도 들었다. 기념촬영만 하며 책만 전달받으려는 곳도 있었다. 하지만 책 한권을 보내도 반드시 아이들과 주민들을 만난다. 생색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책만 전달하는 것이 아닌 책을 왜 읽어야 하는지 책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 명확히 인식시키기 위해서이다.’ (김수연, 『내 생의 단 한번의 약속』)

3.2 성장기(1997~2005)

임의단체로 활동해 오던 좋은책읽기가족모임은 1997년 2월에 사단법인 등록을 하면서 학교마을도서관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게 되었다. 학교마을도서관 개설 운동에 외부 공적기

금이 투입되기 시작하였다. 2002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모사업에 '농·산·어촌 학교마을도서관 개설사업'이 선정되어 도서관 개설 비용을 후원받게 된 것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사업은 2002년~2004년까지 이어져 총 1억 원으로 강원도 지역에 5개의 학교마을도서관이 개관하게 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농·산·어촌 지역 학교에서 마을도서관 개설 신청이 크게 증가하였다. MBC 예능프로그램 느낌표 '책, 책, 책 책을 읽읍시다' 코너에서 매주 추천 도서를 선정 발표하면서 우리사회에 '책 현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책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점이나 도서관이 없는 농·산·어촌은 도서관 소외지역으로 남을 뿐이었다.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의 변현주 사무국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방송의 영향력은 농·어촌 지역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지만 각종 매체를 통해 보고 듣는 독서 정보는 넘쳐나는데 비해, 독서환경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아 상대적인 박탈감이 더욱 커지는 실정이며 새로 세워지는 도서관도 이용 인구를 따져 인구 밀집지역이나 도심지, 행정중심지 위주로 선정되니 산간벽지는 늘 소외지역으로 남을 뿐입니다.' (『오마이뉴스』, 2003년 3월 20일)

부족한 공공도서관의 대안으로 농·산·어촌 지역을 위한 학교마을도서관 운동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인터넷이 농·산·어촌 산간벽지 마을까지 연결되어 학교마을도서관에 대한 정보를 접할 기회가 많아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학교마을도서관 운동 정보를 접한 농·산·어촌 지역 학교 교장과 도서관 담당교사, 지역주민들은 운동 추진단체인 (사)좋은책읽기가족모임으로 편지를 보내거나 홈페이지에 학교마을도서관 개설을 요청하는 글을 올리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2001년 단체회보에서 신청 사례로 소개하고 있는 강원도 정선 화동중학교 함영세 교장의 편지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학교는 정선읍에서 동쪽으로 50리 떨어진 산간벽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면소재지로 학교부근의 마을인구는 300여명 정도이고 주민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는 가난한 마을입니다. 학생은 3학급에 79명이며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같이 있습니다. 도서관은 물론 문화시설은 전무하고 외부 세계와 접할 수 있는 수단은 TV와 PC인터넷이 전부입니다. 저는 교장으로 부임하여 본교에 온지 20여일 되었습니다. 산간벽지 우리아이들에게 도시 아이들과 같은 좋은 책을 읽게 하고 싶어 교실 1칸을 도서실로 꾸리려고 합니다. 어렵게 도서관 공간은 마련했지만 책장과 책이 없습니다. 학급문고의 책을 모아보니 60권 정도에 책장 2개뿐입니다. 매년 학급당 20만원씩 책정되어 도서를 구입하지만 턱없이 부족합니다. 독서교육에 관한 내용을 검색하다 학교에 마을도서관을 설치하는 단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열악한 독서환경에 있는 아이들과 마을주민들을 위한 마을도서관을 우리학교에 개설해주시면 책읽는 화암마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화동중학교 함영세 교장의 편지글)

2002년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은 학

교마을도서관 확산에 큰 영향을 미쳤다. 좋은 책읽기 가족모임 홈페이지에 학교마을도서관 개설을 요청한 학교들 중에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지원받아 도서관 시설을 마련한 곳이 많았다. 도서관 시설은 현대화되고 개선되었지만 농·산·어촌 학교에서 제대로 된 장서를 확충하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학교마을도서관을 운영해보겠다고 나선 학교들이 처음부터 지역주민들을 위한 도서관을 운영하겠다는 분명한 목표를 가진 것은 아니었다. 우선 학생들에게 좋은 책을 읽고 싶다는 생각으로 책을 지원받겠다는 생각이 우선이었다. 따라서 학교마을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에 학교마을도서관 운동의 취지를 인식시키는 일은 성장기 학교마을도서관 운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다.

학교마을도서관 운동의 성장기에는 학교마을도서관 개설 신청을 받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화되면서 학교마을도서관 조성지역 선정을 위한 몇 가지 원칙이 수립되었다.

첫째, 농·산·어촌 학교를 대상으로 하며 지역주민 야간개방 원칙이다. 학교마을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이 없는 면단위의 농·산·어촌 지역 소규모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였다. 학교도서관의 개방 시간은 낮 시간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저녁에도 개방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학교가 선정되었다. 주민들은 농사 일이나 생업 때문에 낮에 도서관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개관행사로 독서의 중요성을 알리는

강연과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다. 학교마을도서관의 개관행사가 기존의 의료봉사와 미용봉사 중심에서 독서문화행사 위주로 전환된 것이다. 이 시기에 미용봉사는 계속되었지만 개관행사에 동화작가, 동화구연가, 독서지도사 등 독서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되었다. 어린이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글짓기대회를 개최하여 시상하기도 하였다.

셋째, 종이책 외에 전자도서도 지원하였다. 작은도서관 민·관 협력운동을 하고 있는 강남구의 협조를 얻어 강남구 전자도서관¹⁾을 농·산·어촌 학교마을도서관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안 증도초등학교에 개설된 증도 학교마을도서관을 시작으로 학교마을도서관 이용 어린이들에게는 강남구 전자도서관 아이디를 부여하여 7만권의 전자책을 자유롭게 볼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한 것이다.

넷째, 학교마을도서관 운영을 위한 활동가들을 조직하고 교사들과 협력하여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학교마을도서관의 운영은 학부모와 주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므로 학교장과 주민 대표 1명이 공동으로 학교마을도서관 관장을 맡도록 하였다. 학부모를 중심으로 한 도서관 사서도우미들은 도서대출 반납과 어린이들에게 책읽어주는 활동, 독서동아리 운영 등을 담당하였다.

학교마을도서관은 어린이들의 독서교육과 지역주민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명감 있는 교장과 교사들에 의해 운영되고 확산될 수 있었다. 학교도서관을 시골의 마을도

1) 강남구는 2001년부터 학교도서관개방화 사업으로 관내 초등학교도서관을 리모델링하고 일반장서와 전자도서를 지원하였다. 또한, (사)좋은책읽기가족모임과 함께 문화소외지역 어린이들을 위해 강남구 전자도서관을 이용가능하도록 무상 지원하였다.

서관으로 활용하고 싶다는 사연이 채택되어 학교마을도서관을 개관한 안동 남선초등학교의 도서관 담당교사인 정연주는 학교마을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교사의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만든 도서관을 마을사람들이 자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마을사람들이 도서관을 제집처럼 드나들 수 있어야 해요. 마을도서관으로 만든 이유가 그것이에요. 마을사람들이 학교를 친숙하게 대하면 여기는 낙후된 시골학교가 아니라 아이들이 꿈을 키워가는 공간이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학교도 마을도 발전 할 수 있어요. 학교마을도서관 운영을 위해 독서를 좋아하는 학부모들과 마을사람들이 스스로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게 저의 소임이라고 생각해요.’ (『초등우리교육』, 2003년 9월호)

학교마을도서관 운동은 도서관이 부족한 지역의 학교도서관을 마을도서관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독서를 지원하고 학교와 주민들이 협력하여 도서관을 운영하게 함으로써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하지만 학교마을도서관 운동은 민간단체인 (사)좋은책읽기가족모임 대표인 김수연의 사재 출연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 지속적인 운영 지원보다는 개설 위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

3.3 발전기(2006~2008)

학교마을도서관 운동을 이끌어온 (사)좋은책읽기가족모임은 2005년 11월 16일 단체명을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로 변경하며 본격적으로 도서관 운동을 확장했다. 창설자인 김수연의 헌신으로 20년 가까이 이어온 학교마을도서관 운동에 큰 변화가 찾아왔다.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운동이 더디게 전개될 즈음인 2005년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NAVER)’에서 학교마을도서관 운동 참여를 제안해 온 것이다. 이전에도 몇몇 기업에서 후원 참여 의사를 보이기도 하였지만 네이버의 참여는 단순 후원이 아닌 운동 주체와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는데 의의가 있었다. 김수연은 그의 저서에서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저는 제자신이 불쏘시개 같은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지핀 자그마한 불씨가 많은 사람들의 참여와 관심 속에서 은근하지만 뜨겁게 타올라 수 있기를 바라며 달려왔는데 외부의 도움 없이 해오다보니 몸도 마음도 지치더군요. 신문과 방송의 보도를 보고 후원 의사를 보인 기업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1회성 이벤트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혼자 힘으로 버텨왔는데 한 개인이 사비를 털어 일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걸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멈춰야 하나 생각할 즈음에 네이버와 연결이 되었어요. 지식정보를 다루는 곳이니 협찬을 넘어 공동 캠페인을 할 수 있겠다 했지요.’ (김수연, 『내 생의 단 한번의 약속』)

포털사이트는 지식 공유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도서관 운동도 지식을 전파한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지식정보를 기반으로 사업을 펼치는 네이버는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도 사회에 기여할 방법을 찾고 있었다. 네이버에서는 먼저 지식정보에서 소외된 농·어촌 산간벽지의

어린이들과 주민들을 위한 '책읽는버스'²⁾를 지원하였다. 책읽는버스는 45인승 대형버스를 개조해 내부를 도서관으로 꾸미고 책이 필요한 곳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였다. 당시 네이버는 '지식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고 지식의 원천이 책이라는 생각으로 독서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책읽는 문화 확산을 통해 가치 있는 지식이 지속적으로 창출되고 지식의 존중을 바탕으로 지식이 공유되고 확산되는 선진화된 지식기반 사회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네이버의 바람이 담겨져 있습니다. TV속에 정보가 넘쳐나는 21세기 정보화시대지만 책은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지식의 원천이자 지식의 보고입니다. 책속의 가치를 소중히 알고 더 많은 이들이 책읽기의 즐거움을 함께 할 때 비로소 대한민국이 진정한 지식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 네이버의 생각입니다. 네이버는 20년간 전국 산간벽지와 오지의 지역민과 어린이를 위한 작은도서관 개설로 책과 독서교육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는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동식 버스기금을 마련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 소식지』, 2005년 12월)

책읽는버스는 학교마을도서관 운동에 있어 어린이들과 지역주민들이 책과 도서관에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 학교마을도서관을 조성하기 어려운 벽지마

을 분교어린이들과 주민들에게 독서기회를 제공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책읽는버스는 2005년 1대로 시작하여 2007년에는 4대로 확대되었다. 강원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을 중심으로 학교와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을 방문하여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였고, 전국적으로 열리는 축제현장과 여름에는 해변, 가을에는 국립공원 등산로, 겨울에는 스키장을 찾아 책읽기 캠페인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책읽는버스는 기동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최북단인 고성에서부터 최남단인 마라도까지 찾아가는 전국적인 독서캠페인을 전개하면서 새로운 독서수단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책읽는 강릉', '책읽는 제주' 등 지역단위의 독서운동을 펼치는데도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네이버의 후원은 학교마을도서관 개설로 이어졌다. '우리학교 마을도서관'이라는 캠페인명으로 학교마을도서관 후원을 시작하여 첫 결실로 2005년 12월 1일 강원도 정선 예미초등학교에 예미학교마을도서관이 탄생하게 되었다. 네이버의 후원으로 학교마을도서관 운동은 탄력을 받아 2006년 17개소, 2007년 28개소, 2008년 57개소를 개관하였다.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의 학교마을도서관 개설 운동에 네이버의 참여로 운동은 시너지효과를 거두며 확산되어 갔다.

네이버의 참여가 학교마을도서관 운동에 기여한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네이버는 기금을 후원하여 학교마을도서관의 양적성장이 가능한 재정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졌다.

2) '책읽는버스'는 네이버의 후원으로 마련되었으며 2005년 1대를 시작으로 2007년 4대로 늘었다.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에서 운영하며 강원도 고성에서부터 제주 마라도까지 전국적인 독서캠페인을 전개하였다. 2010년 네이버문화재단으로 이관 후 재단에서 운영하다 2012년 운영이 종료되었다.

둘째, 버스도서관인 '책읽는버스'를 지원하여 전국 단위의 독서캠페인을 병행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셋째, 포털사이트가 가진 장점을 활용한 학교마을도서관 홍보와 네트워킹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네이버는 학교마을도서관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학교마을도서관의 개관 소식과 도서관들의 활동내용을 소개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학교마을도서관의 운영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북리펀드(Book Refund)³⁾를 통해 신간도서를 지원함으로써 학교마을도서관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장서구입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네이버의 학교마을도서관 후원으로 재정이 확보되면서 학교마을도서관 운동을 이끌고 있던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은 학교마을도서관 운동의 본격적인 확산을 위해 언론의 캠페인 참여를 유도하게 되었다. 마침내 2007년 9월 10일 동아일보에서 '고향학교에 마을도서관'을 이라는 타이틀로 학교마을도서관 만들기 캠페인을 시작하여 학교마을도서관 운영사례와 개관소식을 정기적으로 보도하고 출판사와 개인, 기업의 참여를 독려했다. '고향학교에 마을도서관' 캠페인은 2008년 말까지 이어지며 학교마을도서관의 인식 확산에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 지역 신문도 학교마을도서관 운동의 협력 주체로 참여하게 되었다. 지역 언론 중 강원일보는 가장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개관보도뿐만 아

니라 기획 기사로 '농촌마을에 꿈과 희망을, 학교마을도서관'을 연재하기도 하였다. 강원일보에서는 학교마을도서관에 대한 기획 기사를 연재하는 목적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 창의력과 상상력의 원천이 되는 독서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다. 책읽기는 한 나라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교육의 하나다. 특히 산간 오지가 많은 강원도의 경우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책읽기'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낙후된 지역, 줄어드는 인구, 점점 빈곤해져 가는 강원도의 발전의 계기를 '학교마을도서관'에서 찾자는 운동도 이같은 배경에서 시작됐다. 이에 따라 학교마을도서관의 의미와 현재 운영상황, 발전방향등을 집중조명하기로 하고 8회에 걸쳐 학교마을도서관 시리즈를 연재한다.' (강원일보, 2007년 10월 1일)

학교마을도서관의 양적증가와 언론의 캠페인 참여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되었다. 민간과 기업의 후원으로 학교마을도서관을 개설하고 운영을 일부분 지원하지만 도서관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 등 행정당국의 지원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시·군 단위의 협약은 시·도 전체가 협약을 맺고 학교마을도서관에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하는 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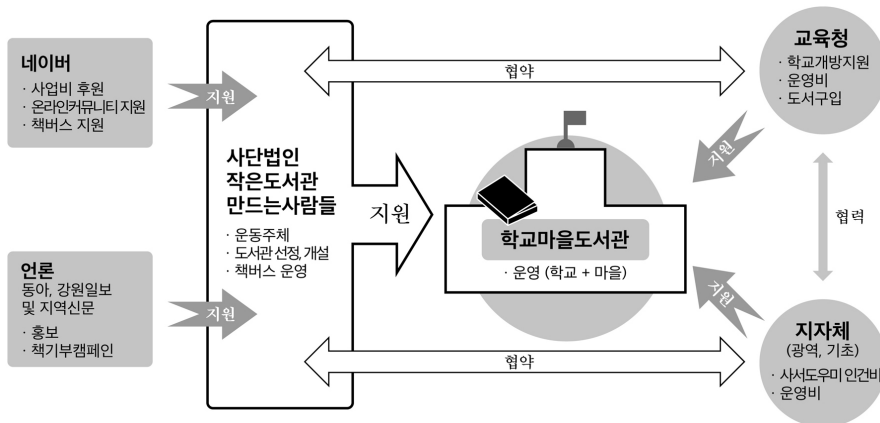
3) 북리펀드(Book Refund)는 구입한 책을 읽고 일정기간내에 서점에 다시 가져다주면 책값의 반을 환불받고 반납된 도서는 '학교마을도서관'에 기증하는 운동이다. 독자에게는 책값을 일부 돌려주고 수집된 책은 사회에 돌려주는 지식의 나눔과 선순환을 이루는 독서운동으로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 네이버, 출판인회의, 교보문고가 함께 추진하였다. 북리펀드 도서는 노경실, 정이현 등 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매월 어린이책 10종, 성인도서 10종을 선정하였다. 이후에는 네이버의 북리펀드 페이지를 통해 매월 독자투표로 40권을 선정하였고 도서관납도 대형서점은 물론 편의점에서도 가능하게 하여 참여를 확대하였다.

태로 확대되었다. 전라남도와의 협약을 시작으로 경상남도, 강원도가 참여하였다. 전라남도 강진군은 학교마을도서관 협약에 그치지 않고 학교마을도서관의 지속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해 ‘학교마을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전라남도 지역에서 언론기관으로 캠페인에 참여한 광주일보에서는 ‘농어촌 업그레이드 학교마을도서관’이라는 제목으로 학교마을도서관 조성 협약 기사를 다루고 있다.

‘농어촌 어린이와 지역주민들에게 독서쁨을 일으키기 위한 학교마을도서관 조성운동에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사회단체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도서관조성 열풍이 전남도를 비롯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광주일보와 전남도, 전남도교육청,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 네이버 등을 24일 전남도청에서 ‘농어촌지역학교마을 도서관조성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농어촌 학교마을도서관 조성사업’은 공공도서관이 없는 농어촌지역의 학교도서관을 마을 공공도서관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각 도서관에는 3천

여 권의 책이 기증되며 야간에는 지역주민에게 개방된다. 전남도는 이날 협약을 통해 학교마을도서관 자료확충에 필요한 예산을 일선 시, 군과 분담지원하게 되며 전남도교육청은 도서관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고 관리하게 된다. 이와 함께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과 네이버는 도서관 자료확충 및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비용을 지원하며 광주일보는 도서관조성 및 독서봄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을 담당하게 된다.’ (『광주일보』, 2008년 7월 25일)

학교마을도서관 운동은 이 시기에 협력주체들 간의 역할을 명확히 한 협약을 통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학교마을도서관의 운동주체인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은 기업의 후원과 언론의 지원을 받아 교육청, 지방자치단체와 운영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학교마을도서관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것이다. 학교마을도서관 운동 발전기의 참여 기관들의 협력관계를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학교마을도서관 운동의 발전기 협력모델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학교마을도서관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정보 공유를 위한 온라인 활동뿐만 아니라 직접 한자리에 모여 소통하는 '학교마을도서관 워크숍'이 2008년 1월 18일과 19일 양일간 강릉시 한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학교마을도서관 운동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학교마을도서관 운영자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도 학교마을도서관 운동에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다. 각각의 도서관의 운영도 중요하지만 학교마을도서관 운영 취지와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도서관들이 힘을 모아 정책 방향을 이끌어 낼 수도 있고 동반성장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첫 모임은 2007년에 개관한 학교마을도서관 운영 학교의 교장과 운영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44명이 참석하여 1년간 학교마을도서관을 운영하면서 겪은 어려움을 나누고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2007 학교마을도서관 워크숍'에 참여한 교사와 운영자들은 학교마을도서관의 운영 방식과 효과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학교마을도서관에서 학부모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실시했더니 단순 도서관 기능을 넘어 지역의 문화센터로 자리 잡게 되었어요. 덕분에 도교육청에서 2천만원의 사업지원비까지 얻어 내 1석 2조의 효과를 얻었죠.” (반계학교마을도서관 최민영교사)

“도서관에서 교사들이 방과후에 자율적으로 논술교육을 했어요. 그랬더니 학부모들의 열렬한 호응 속에 아이들의 방문이 늘었어요.” (금구학

교마을도서관 김창권교사)

“엄마들이 도서관 야간사서를 자청해서 저녁시간에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도서관 야간개방문제를 해결하고 아이들과 같이 책 읽는 시간도 가지고 있어요.” (보령 청소학교마을도서관 학부모)

“학교마을도서관이 생기면서 엄마들이 자운영이라는 독서클럽을 만들어서 매주 모여 책을 읽고 이야기도 나누고 글을 써서 문집까지 냈어요.” (경남 안의학교마을도서관 운영자)

“극장이용이 어려운 지역이라 도서관에서 영화를 상영해 '대안극장'을 운영하면서 주민들에게 학교마을도서관을 알리고 있습니다.” (제주 토산초 교사)

지역주민들과 학부모들이 학교마을도서관의 조성과 운영에 직접 참여하였고, 교장과 교사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학교마을도서관의 운영모델을 만들어갔다. 농·산·어촌 지역의 특성상 도서관에 직접 오기 어려운 지역주민들을 위해 도서관 분관 운영이나 학생들을 활용한 책배달 서비스도 등장하는 등 학교와 마을의 협력이 확대되었다. 야간에도 문을 여는 학교마을도서관이 증가하였고 '달빛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야간에 가족과 함께 참여하는 독서활동을 전개하였다. 이와 같이 학교마을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이 부족한 지역에서 마을도서관의 역할을 담당하며 어린이 장서의 확충으로 어린이들의 독서활동이 증대되는 효과도 거두었다.

3.4 확산기(2009~2013)

이 시기는 학교마을도서관 운동의 추진 주체가 다양화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학교마을도서관의 양적인 증가와 더불어 운영 면에서도 안정적인 기반이 형성되었다. 그동안 학교마을도서관 운동의 창설자가 대표로 있는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이 단일 주체로 학교마을도서관 운동을 전개해 왔으나 확산기에는 그동안 후원을 통해 학교마을도서관 운동에 기여해왔던 네이버에서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별도의 학교마을도서관 운동 주체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학교마을도서관을 작은도서관 정책의 한 부분으로 반영하여 학교마을도서관 운영 학교를 확대하고 운영지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례가 증가하게 되었다. 학교마을도서관이 개설된 광역자치체와 교육청, 주관단체와 후원기업간의 운영 협약도 확대되었다. 경상남도, 전라남도, 강원도에 이어 전라북도, 경상북도, 충청북도 등 학교마을도서관이 설치된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참여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는 학교마을도서관 운동이 조성중심에서 운영지원을 병행하는 시스템으로 변화되었다. 운영지원은 직접 지원과 간접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네이버 학교마을도서관 온라인 커뮤니티 홈페이지를 통해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소식과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책과 관련된 행사와 활동을 도서관에 직접 지원하였다. 이달의 도서관 선정, 학교마을도서관의 독서동아리 활동 지원, 운영자 교육 등을 통해 학교마을도서관의 운영 내실화를 기했다.

2012년 한국도서관협회에서 발간한 '우리학

교마을도서관 중장기 발전 방안 구축'에 따르면 학교마을도서관의 운영활성화를 위해 확산기에 진행된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운영 활동비 지원으로 동아리 운영, 야간도서관 개방 및 기타 운영에 대한 활동비 지원을 신청한 학교마을도서관에 분기별로 제공하였다. 둘째, 매달 모범도서관을 선정하여 '책선물'이라는 추가적인 도서지원을 하였다. 셋째, 학교마을도서관 이용자들이 같은 책을 읽고 책이야기를 나누고 선물을 받는 활동인 책이야기 나누기 행사의 운영이다. 넷째, 여름방학 동안 신나는 책읽기 행사를 진행하였다. 개인별 독서기록장을 나눠주고 완성하면 칭찬 선물을 주어 책읽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였다. 다섯째, 좋은 만화책과 만나기 행사로 문학성이 뛰어난 만화책 40종, 만화서가, 만화방 공간을 꾸밀 수 있도록 현수막을 제공하였다. 여섯째, 도서관 운영자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지원하였다. 도서관 운영자 교육, 활동가 교육, 운영자 워크숍, 우수운영자 모임 등을 통해 운영에 필요한 교육, 운영사례 및 우수도서관 방문 등의 기회를 제공하였다(한국도서관협회 2012, 36). 이와 같은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학교마을도서관은 활발히 운영되었고 학교마을도서관 운동은 하나의 도서관운동으로 자리매김을 하며 확산되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마을도서관 운영을 위한 인력지원과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였으며 학교마을도서관 운동의 주요 추진 주체인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과 네이버문화재단에서는 우수 운영도서관을 선정하여 신간도서를 지원하고 동아리활동지원과 학교마을도서관 운영자 워크숍, 자원활동가 교육을 진행하였다. 반면, 확산기에는 학교마을도서관 운동추진 세력의 변

화에 따라 언론의 협력이 마감되어 캠페인은 약화되었다는 특징이 나타났다.

3.5 전환기(2014~2015년 현재)

농·산·어촌 지역의 부족한 도서관 서비스를 환경을 개선하고 학교도서관의 도서 확충에 기여해 온 학교마을도서관 운동도 2013년 이후로 변화의 시기를 맞게 되었다.

첫째, 네이버의 지원 중단에 따른 변화이다. 학교마을도서관 운동은 네이버문화재단의 지원 중단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그동안 지원을 받던 도서관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학교마을도서관 운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2005년부터 학교마을도서관 운동의 후원을 시작하여 2010년 하반기 이후 네이버문화재단을 통해 본격적으로 학교마을도서관 개설을 추진해온 네이버는 2012년 말에 학교마을도서관 개설을 중단하게 되었다. 2013년에는 운영 중인 도서관의 지원활동만 하다 2014년 7월 18일 포털사이트에서 운영해 온 학교마을도서관 온라인 커뮤니티까지 문을 닫고 모든 활동을 종료하였다. 온라인을 활용한 학교마을도서관들의 정보공유와 소통공간을 제공하여 학교마을도서관 운영에 도움을 주었던 학교마을도서관 커뮤니티가 문을 닫으면서 학교마을도서관 현장에서 10여년간 게시하여 축적된 활동자료의 제공도 중단되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학교마을도서관 운영 정책의 변화이다. 2007년부터 민·관 협약을 통해 학교마을도서관 운동에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참여하도록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학교마을도서관의 운영지원 정책이 민

간의 개설지원을 전제로 추진되는 것이어서 학교마을도서관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던 시기에 비해서 축소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발전기와 확산기 만큼 기업의 재정지원이 뒷받침 되지 못하면서 연간 개설하는 학교마을도서관 수는 급격히 감소하였다. 그러나 학교마을도서관 운동의 창설자인 김수연이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 대표직을 다시 맡으면서 지속적으로 학교마을도서관 개설을 이어가며 학교마을도서관 운동의 재정립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도서관 정책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2014년-2018년까지의 제2차 도서관종합발전계획에서 도서관이 지역사회 문화공동체로서 국민행복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 만큼 농·어촌지역의 생활공동체 내에 조성, 운영되는 학교마을도서관이 정착될 수 있도록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학교마을도서관 운동의 추진 과정을 운동의 주체세력의 변화와 발전단계에 따라 태동기, 성장기, 발전기, 확산기, 전환기의 5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학교마을도서관 운동의 성과와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소외지역 중심에 학교마을도서관이 개설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학교운영비가 적은 농·어·촌 지역 소규모 초등학교 도서관에 장서를 마련하여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기여하였다는 점이다. 셋째, 학교마을도서관은 공공도서관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교육청이 감독하고 있는 시설이므로 지속가능한 도서관 서비스 공간

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넷째, 지역커뮤니티 도서관 역할의 수행이다.

학교마을도서관 운동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마을도서관 운동의 정신을 계승하는 민간단체가 중심점이 되어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재정확보를 위해 기업의 후원을 유치하되 특정기업에 의존하면 기업의 사회공헌 전략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므로 기업들의 참여폭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언론과의 공동캠페인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학교마을도서관을 운영하는 학교에 사서나 사서교사

를 우선 배치하는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현시점에서는 교사와 주민이 협력하는 학교마을도서관 운영 인력 체계의 구축을 위해 우수 운영학교나 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넷째, 지역의 공공도서관과의 협력 및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학교마을도서관 운영자교육과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작은도서관 운영자 교육과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대상을 학교마을도서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김수연. 2008. 『내 생애 단 한 번의 약속』. 서울: 문이당.
- 김순덕. 2012. 『농촌지역 학교도서관활성화 방안연구 - 경상남도 초등학교마을도서관 운영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 김종성. 2000. 『한국 학교도서관 운동사 연구』.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문화체육관광부. 2016. 『2015년도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및 운영평가 결과보고서』.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 박시영. 2015. 『지역사회개방형 초등학교도서관 운영실태와 이용자 만족도 분석』. 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대학원.
- 이미영. 2013. 『지역사회 문화공동체로서 학교마을도서관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이연옥. 2001. 『한국 공공도서관 운동사 - 지식과 정보의 공공성 확보 문제와 관련하여』.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이용남. 2000. 마을문고 운동의 초기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4(4): 27-47.
- 한국도서관협회. 2012. 『우리학교마을도서관 중장기 발전 방안 구축』.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강원일보』. 1991. 만나고 싶었습니다: 김수연(사) 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대표. 7월 29일.
- 『강원일보』. 2007. 농촌교육희망찾기 학교마을도서관: ① 학교마을도서관이란?. 10월 1일.
- 『강원일보』. 2007. 농촌교육희망찾기 학교마을도서관: 책속에 우리들의 미래가 있어요. 10월 27일.

- 『광주일보』. 2008. 농어촌 업그레이드 학교마을도서관: 전남 학교마을도서관 연내 10곳 조성. 7월 25일.
- 『국민일보』. 1991. 지리산마을에 도서관 개관. 7월 23일.
- 『동아일보』. 2008. 고향학교에 마을도서관을: 마을도서관 운영자 워크숍. 1월 24일.
- 『오마이뉴스』. 2003. 태안벽지학교에 43번째 ‘작은도서관’ 문 연다. 11월 9일.
- 『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 소식지』. 2005. 좋은책, 좋은삶, 좋은세상. 12월호.
- 『좋은책읽기가족모임회보』. 2001. 좋은책, 좋은삶, 좋은세상: 강원도 정선 화암마을에서 온 편지. 9월 25일.
- 『초등우리교육』. 2003. 교육을 가꾸는 사람들: 학교와 마을을 살리는 생명수, 마을도서관. 9월호. 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 [online]. [cited 2015.12.1]. <<http://smalllibrary.or.kr>>.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Kim, Jong-Sung. 2000. *A Study on the Past, Present, and Future Development Stages of the School Library Movement in Korea*. Ph.D. diss., Pusan National University.
- Kim, Soon Deok. 2012. *A Study of How to Boost School Libraries: On the Basis of the Management of Elementary School Libraries in Kyungnam Province*. M.A.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Kim, Su Yeon. 2008. *Only One Promise in My Life*. Seoul: Munyidang.
- Korean Library Association. 2012. *The Strategics for Establishment of Mid-to Long-term Development of the School and Community Libraries*.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 Lee, Mi Young. 2013. *A Study of School Community Libraries as a Local Cultural Community*. Ph.D. diss., Chung-Ang University.
- Lee, Yeon-Ok. 2001. *A Study of the Public Library Movement in Korea -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Public Access to Knowledge and Information*. Ph.D. diss., Pusan National University.
- Lee, Yong Nam. 2000. "A Study on the Early Development Process of Village Mini-Library Movement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4(4): 27-47.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6. *2015 Results Report of Survey on the Status Operation and Evaluation of Small Library*. Sejong: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Park, Si-Young. 2015. *Analysis of Operation of Elementary School Libraries that are Open to*

the Public in a Local Community and User Satisfaction. M.A. thesis,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A Good Book, a Good Life, a Good World.' 2005. People Making Small Libraries Newsletter, December.

'A Letter from Hwaam Jeongseon, Gangwon Province: A Good Book, a Good life, a Better World.' 2001. Family Gathering for Reading Good Books Newsletter, September 25.

'Opening the Town Library in Mt. Jiri.' 1991. Kukminilbo, July 23.

'People Cultivating Education: Lifeblood Save the School and Community library.' 2003. Our Primary Education, September.

'Rural Education Finding Hope in School and Community Libraries: ① What is School and Community Libraries?.' 2007. Gangwonilbo, October 1.

'School and Community Libraries Searching a Hope for a Teaching of Rural Communities: There is Our Future Hope in Books.' 2007. Gangwonilbo, October 27.

'Small Community Libraries in Hometown Schools: Workshop Offered for Managers of These Libraries'. 2008. Dongailbo, January 24.

'The Secretary-General of People Making Small Libraries upon the Opening of the 43rd Small Library in Taean, an Isolated Area.' 2003. OhmyNews, March 20.

'Upgrading Rural Village, School and Community Libraries: Chonnam Province will Add 10 School and Community Libraries in Town within This Year.' 2008. Kwangju ilbo, July 25.

'I Wanted to Meet Kim Su Yeon, Representative for People Making Small Libraries.' 1991. Gangwonilbo, July 29.

People Making Small Libraries [online]. [cited 2015.12.1]. <<http://smalllibrary.or.kr>>.